

COME & SEE

2026 BETHEL THEME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엄위하시도다"
(시편 66장 5절)



담임목사: 김한요
Rev. Bryan Kim, Lead Pastor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 www.bkc.org ♦ bethel@bkc.org
Tel: 949.854.4010 ♦ Helpdesk(Text-only): 949-229-1181

교회학교 및 그 외 주일예배 안내



- 영아부(0-1.5세) / 본당 1층 영아부실
9:00AM, 11:00AM
- 유아부(1.5-3세) / 본당 2층 유아부실
9:00AM, 11:00AM
- 유치부(3세-PreK) / 할렐루야채플
9:00AM, 11:00AM
- K-1(킨더가든-1학년) / 임마누엘채플
9:00AM, 11:00AM
- 유년부(2-3학년) / 유년부실
9:00AM, 11:00AM
- 초등부(4-5학년) / 체육관
9:00AM, 11:00AM
- 영어중등부(BYM JHS) / 찬양채플, 비전채플
9:00AM(찬양채플), 11:00AM(비전채플)
- 영어고등부(BYM HS) / 비전채플, 비전센터109호
9:00AM(비전채플), 11:00AM(비전센터109호)
- 한어중고등부(CIM) / 살롬채플
11:00AM
- 소망부(장애인) / 조이채플
9:00AM, 11:00AM
- BETHEL GRACE CHURCH /
베델그레이스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日本語 礼拝 / 살롬채플
9:00AM

담임목사 방송설교 안내

- 공중파 TV 방송:
미주 CGN TV 채널 44.9 · 화요일/오후 3시
- 케이블TV 방송 (CTS America):
TV DirecTV 채널 2092 · 공중파 채널 18.8
화요일/오후 6시 45분 · 목요일/오후 12시 30분
- 라디오 방송 (GBC 미주복음방송):
주파수 AM 1190 KHZ · 금요일/오후 1시

주 일 예 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1부 예배 | 7:00AM 2부 예배 | 9:00AM 3부 예배 | 11:00AM 4부(청년) 예배 | 2:00PM

-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Presider 예배 인도자
-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 Altogether 다같이
-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Bethel Worship 베델 워십
1부/주 은혜를 받으려(찬/새39장)

기도 Prayer..... Altogether 다같이
1부/박상곤 장로 2부/박영덕 장로 3부/백권기 집사 4부/박세환 장로

찬양(1부) Anthem..... Bethel Choir 베델 콰이어
1부/이 작은 나의 빛(Keith Hampton 작곡)

영상광고 Media Announcement Media 방송실

유아 세례식(3부) Infant Baptism Koyun Lee 이고운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Altogether 다같이
1부/요(John) 5:1-9 2부/시(Ps.) 12:1-8
3부/왕하(2 Kings) 4:1-7 4부/행(Acts) 9:1-7

말씀 Message 1부/ 불확실한 교회..... Rev. James Noh 노진준 목사
2부/ 불확실한 세상..... Rev. Steve Park 박성일 목사
3부/ 불확실한 미래..... Rev. Gab Sihng Chung 정갑신 목사
4부/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 했다 Rev. Tak Yeol Lee 이택열 목사

적용찬양 Song of Response Altogether 다같이
1부/주 예수 이름 높이어(찬/새36장) 2부/오직 믿음으로 3부/주님의 선하심

*결단찬양 및 봉헌 Song of Dedication and Closing Altogether 다같이
1, 2, 3부/Come and See 50

*축도 Benediction 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가 동시통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www.bkc.org)

담임목사 칼럼
Lead Pastor's Column

크리스천의 영향력

The Influence of a Christian



김한요 목사 / Rev. Bryan Kim

우리 자녀들은 전부 가까이에서 삽니다. 시집간 딸이나, 장가간 아들들이나, 호출하면 바로 올 수 있는 거리에서 삽니다. 시집 안 간 막내 딸만 우리 부부랑 같이 살고, 모두 출가했지만, 다행히? 다들 가까이에서 삽니다. 감사하게도 손주들이 보고 싶으면 밥 같이 먹자고 부르면, 바로 달려옵니다. 지난 주에도 갑자기 아이들이 보고 싶어 번개팅을 했습니다. 다들 먹고 싶은 음식이 달라, 일단 food court에 모였습니다. 더운 여름에 집에서 음식 만들기 보다는 이렇게 모여서 모처럼의 가족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인 후에 보니, 엘에이에 사는 둘째 아들 식구만 오지 못했습니다. 밥 한끼 급작스럽게 먹기 위해서 내려오기 힘들었나 보다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결혼기념일이라 이미 약속 장소에서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어엿한 아버지가 된 아들이 한편 대견해 보이기도 하고, 가족들과 함께 뭉치는 일에 오지 못한 것이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식사하는 도중, 누가 제일 많이 야단을 맞았는가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큰 아들이 제일 야단을 많이 맞았다고, 웃으면서 옛 추억을 나누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참석하지 못한 둘째 아들이 야단 맞았던 이야기를 다들 하기 시작했는데, 다른 이야기는 몰라도 그 이야기는 항상 저를 겸손하게 하는 부끄러운 이야기였습니다. 어린 막내 딸을 오빠들이 짓궂게 해서 그만 울렸을 때, 제가 혈기에 아들을 때렸던 기억 때문입니다. 아마 둘째 아들이 그때 고등학생이었을 것입니다. 늘 착하고 말이 없는 둘째 아들이 어찌다가 우는 막내 동생 때문에 아버지에게 억울하게 날벼락을 당한 것입니다. 저는 그날 둘째 아들에게 정중하게 사과를 하고, "아빠를 용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둘째 아들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용서한다는 답을 주었고, 저는 다시는 혈기를 부리며 꾸짖는 일은 없을 것을 약속하며 와락 아들을 껴안고 한참 있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모두가 그때 일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이 저는 많이 놀랐습니다. 다행히 아빠가 자기들에게 용서를 구한 것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그때 제가 아이들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용기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난 주말 우리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조명하다' 주제로 강의와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깨우침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 주신 은혜가 정말로 컸습니다. 진정한 부모의 영향력은 완벽한 부모가 되는 것보다,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부모가 되는 것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All of our children live close by. Whether it's our married daughter or married sons, they all live within a distance where they can come over right away if called. Only our youngest daughter, who is not yet married, lives with us. Although all the others have moved out, thankfully, everyone lives nearby. Thankfully, whenever we miss our grandchildren and call them over for a meal, they come running right away. Last week, I suddenly missed the kids and organized a quick meetup. Since everyone wanted to eat different foods, we first gathered at a food court. Rather than cooking at home in the hot summer, gathering like this allowed us to enjoy some well-deserved family time. After gathering, I noticed that only our second son's family, who lives in LA, couldn't make it. I thought it might have been tough for him to come down just for a quick meal, but as it turned out, it was his wedding anniversary, so he was already having dinner at a planned location. On one hand, I felt proud of my son, who has now become a respectable father, but on the other hand, I felt sorry that he couldn't join us for the family gathering.

During the meal, a conversation started about who used to get scolding the most. The eldest son said he got scolded the most, and everyone was busy sharing old memories with laughter. However, everyone then started talking about a story of the second son getting scolded—a story that, regardless of any other, always makes me feel humble and embarrassed. I remembered because it was a time when I struck my son out of anger after he playfully teased our youngest daughter and made her cry. My second son was probably in high school at the time. My second son, who was always kind and quiet, ended up suffering an unfair blow out of the blue from his father because of his crying youngest sister. That day, I sincerely apologized to my second son and asked, "Please forgive Dad." At that time, my second son silently nodded his head, giving me his forgiveness. I promised him that I would never lose my temper and scold him like that again, and I held my son tightly in a long hug.

I was very surprised that all of our children still remembered what happened back then. Fortunately, they also remembered that their father had asked for their forgiveness. Looking back now, it was God's grace that gave me the courage at that moment to sincerely apologize to my children and ask for forgiveness. Last weekend, listening to the lecture and sermon under the theme 'Illuminating the Era of Uncertainty,' we received many realizations and challenges. The grace given to our family was truly great. It seems that a true parent's influence comes not from being a perfect parent, but rather from being a parent who repents of their mistakes and seeks forgiveness first.

주일 1-3부 설교노트 / 나눔교재

설교자

- 1부: 불확실한 교회 (요 5:1-9) 노진준 목사
- 2부: 불확실한 세상 (시 12:1-8) 박성일 목사
- 3부: 불확실한 미래 (왕하 4:1-7) 정갑신 목사

적용하기



■ 적용찬양: 1부/주 예수 이름 높이어(찬/새36장) 2부/오직 믿음으로 3부/주님의 선하심

예배 소개 수요저녁예배

인생 바다에서 만난 구명선



베델의 온 성도가 한 배에 오르는 은혜의 항해, 거룩한 수요예배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어느덧 한 해의 반환점을 지나 무더위가 몸과 마음을 쉽게 지치게 하는 계절입니다. 숨 없이 달려가는 세상의 속도 속에서 한 주의 한복판인 수요일 저녁, 우리는 저마다의 삶의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옵니다. 이 시간은 거친 풍랑 같은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새 힘을 공급받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특히 이번 8월부터는 오랫동안 베델교회를 말씀으로 섬기시며 양육해 오신 김한요 담임목사님과 함께하는 수요말씀여행 "인생 바다에서 만난 구명선"의 막이 오릅니다. 목사님과 함께하는 마지막 수요말씀여행이기에 더욱 뜻깊습니

다. 이번 여정에서는 신앙의 가장 기초인 구원론을 함께 배우며, 세상의 풍랑 속에서 우리를 건져 올리시는 하나님을 나의 참된 구원자로 다시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수요예배팀도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에 더욱 집중하실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설교의 핵심을 담은 전용 교재(북클릿)를 제작하여 배포하며, 주일 예배 전후 코트야드에서 신청 및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8주 과정을 완주하시는 성도님들을 위한 소정의 선물과 유아부터 초등학교(K-5)까지의 자녀 돌봄도 마련하여 부모님들께서도 편안하게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베델의 모든 가정과 성도님들을 이 뜻깊은 말씀의 항해에 기쁨으로 초대합니다.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찬양하고 말씀 앞에 설 때, 우리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말씀의 닻을 올리는 이번 수요말씀여행이 우리 모두를 더욱 견고한 믿음 위에 세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조광중 집사



- 일시 및 장소: 8월 5일(수)부터 8주간,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 본당
- 사전 등록: QR 코드 및 주일 코트야드 안내부스 (교재 권당 \$1, 등록자에 한해 구입 가능)
- 자녀 돌봄: 유아, 유치, K-5학년(사전 신청 필요)
- 문의: 조광중 집사 (949) 706-4168

선교 후기 캄보디아 2

작은 씨앗,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되다!

기도와 사랑으로 후원해 주신 모든 성도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선교팀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캄보디아 땅을 다시 밟고 무사히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선교를 준비하며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에 한 가지 큰 꿈을 부여주셨습니다. '불교 국가인 캄보디아가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 처음엔 아득해 보였지만, 기도할수록 그 꿈은 점점 선명해졌고, 그 변화의 출발점이 바로 Pathway International School이 되기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학교에서 자란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성장해 캄보디아를 변화시키는 크리스천 리더가 되고, 나아가 병원과 교육기관이 세워져 아픈 자를 돌보며 복음을 심는 나라가 되는 꿈입니다. 한국의 세브란스가 한 시대를 변화시키는 복음의 통로가 되었듯, 이 학교가 캄보디아 복음화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도하며 선교를 준비했습니다.

지난 7월 2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된 이번 선교에서는 의료 및 한방 사역이 함께 펼쳐졌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의료팀은 약 400여 명의 환자를 정성껏 돌보며, 몸의 치료를 넘어 말보다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다음 세대를 걱정하는 시대라 하지만, 캄보디아에서 함께한 우리 학생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참된 '소망의 세대'였습니다. BYM 학생들은 낯선 환경 속에서도 아이들과 흠바닥을 구르며 온몸으로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선교 현장에서 만난 아이들의 변화는 큰 감동이었습니다. 작년에 소개했던 이름 없는 아이의 굳은 표정이 어느새 환한 미소로 바뀌어 있었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꿈을 키워가는 '리파'를 만났습니다.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리파를 보며, 하나님께서 왜 이곳에 이 학교를 세우셨는지 다시금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아이의 변화

가 한 가정과 지역, 나아가 한 나라를 변화시키는 거룩한 시작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일정은 짧았지만, 우리가 뿌린 사랑과 기도의 씨앗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지난달 파송받으신 이석배 선교사님께서 캄보디아 땅에서 지혜와 건강으로 사역을 잘 감당하시도록, 그리고 Pathway International School이 더욱 성장하여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도록 계속해서 기도와 사랑으로 동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종선 장로



Come&See 50 특집 10

베델의 여정

30년의 은혜, 베델과 함께한 세월

1996년 결혼 후 먼저 등록 교인으로 다니던 남편을 따라 저도 자연스럽게 베델의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 어느덧 30년이 넘는 세월이 되었고, 돌아보면 베델교회와 웃고 웃으며 함께했던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0년 초 제3대 손인식 목사님 시기, 부흥이 정점에 달했을 때 살아 있던 예배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온 성도가 한마음으로 부르는 예배 첫 찬송 때 파도와 같이 임하시는 성령의 물결을 느끼며 전율하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라는 표어처럼 처음 오시는 사람들에게 낯설지 않게 따뜻하게 다가와 주셨습니다. 그 시절 교회는 놀랍도록 빠르게 부흥하여, 옛 예배당은 조금 늦게 도착하면 보조 자리에 앉아야 했고, 100개가 넘는 보조 의자가 현관 밖까지 있어야 할 정도로 매주 새가족들이 넘쳐났습니다. 예배부 봉사자분들이 안쪽으로 들어가 빈틈없이 붙어 앉으시라는 권면이 늘 자연스러울 때였습

니다. 예배당에 빈틈없이 꼭 끼워져 앉아서도 마음만은 풍성하던 그때의 부흥의 열기와 감격은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세월이 흐르며 새 비전교육관과 몇 년 뒤 새로운 지금의 성전이 세워져 현재의 아름다운 성전으로 발전하였습니다. 교회에서 태어난 세 자녀들도 유아세례부터 시작해 유아/유치부, 어와나와 고등부에 이르기까지 뜰과 체육관에서 뛰어놀며 조금씩 변화하던 교회와 함께 자라났습니다. 아이들에게 교회는 자주 방문하는 두 번째 집처럼 친근함과 추억의 장소가 되어 주었습니다.

13년 전에는 담임목사님의 이임과 취임을 처음 경험하였습니다. 손목사님께서는 돌탕 목회로 새 신자를 자연스럽게 예수님께 인도하는 예피

타이저 스타일이셨다면, 김한요 목사님은 성경강의로 믿음을 성숙하게 하는 깊이 있는 말씀으로 메인 코스를 먹는 신앙을 현재까지 이끌어 주시고 있습니다.



20대에 다니기 시작한 교회가 어느덧 또 다른 새로운 목사님을 기다리는 이즈음, 바라기는 새 목사님과 다음 세대가 이 성전을 다시 미어지도록 채우고, 여러 세대가 하나 되어 함께 예배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베델교회가 지역 안에서 참된 소금과 빛

으로 계속 쓰임받으며, 오랫동안 감당해 온 세계 선교의 사명을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어가기를, 그리고 앞으로의 50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기를 온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김혜영 권사



무화과2 셀
화평 목장



우리 무화과2 셀모임은 실버타운 라구나우즈에서 은퇴 후 함께 살아가는 다섯 가정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원래 하나였던 '무화과' 셀이 2년 전 두 개의 셀로 나뉘었고, 다시 6개월 전에는 네 개의 셀로 확장되는 은혜의 부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계속해서 셀 분가를 이루며 믿음의 공동체로 성장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하나의 무화과 셀이 아닌, 라구나우즈에서 함께 자라가고 있는 네 개의 무화과 셀을 소

믿음의 한 가족

개하고자 합니다. 라구나우즈에 있는 여러 셀 가운데 무화과 네 개 셀의 특별한 점은 은퇴한 지 오래되지 않은 비교적 젊은 시니어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젊다'고 소개하지만, 저는 올해 예순셋으로 여전히 우리 셀의 막내입니다. 모든 분들이 은퇴 전 오랜 시간 믿음의 길을 걸어오셨기에, 신앙적으로도 막내인 저는 목자로 섬기면서 늘 부족함을 느끼고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아직 할 일이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습니다. 직장과 사업의 자리에서 물러난 후에도 오히려 더 바쁘고 활기찬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삶을 나누고 기도하며 함께 세워져 가는 과정에 있으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사명을 발견해 가고 있습니다. 베델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도 아직은 익숙하지 않아 때

로는 어색한 부분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의 가족으로 묶어 가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의 가장 큰 소망은 우리 무화과 셀 식구들이 인생의 마지막 챕터를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하게 써 내려가는 것입니다. 또한 이곳 라구나우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명자로서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우리 이웃 가운데 섬김과 감사의 모퉁잇돌이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건강, 그리고 경험들이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기도합니다.

장형권 집사

사역 소개
QTin

QTin 말씀으로 가득 찬 돌항아리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QTin 사역으로 불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주님, 저희가 비어 있는 돌항아리가 아니라 QTin 말씀으로 가득 찬 돌항아리가 되어 주님의 잔치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한 절 한 절 따라가며 그 속에 담긴 축복의 말씀을 묵상하고 삶에 적용함으로써, 주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의 동반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QTin 교재는 영유아부터 장년까지 연령별로 여섯 종이 있으며, 한글판과 영문판을 합해 총 열두 종이 출판되고 있습니다. 열두 가지 그릇이지만 담긴 본문은 하나입니다. 온 가족이 같은 말씀 앞에 둘러앉아 매일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도록 돕는 사역입니다.

매월 출판되는 QTin 책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베델교회 카페)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사

역을 위해 네 분의 간사님과 열 분의 봉사자님이 헌신해 주고 계십니다. 간사님들은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아 한국에 도서를 발주하고 성도님들께 배송하는 업무를 맡아 주시고, 열 분의 봉사자님은 카페에서 직접 책을 권하며 판매하는 일을 기쁨으로 섬겨 주십니다.

영문판 QTin 번역 과정에도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지난 여러 해 동안 번역팀 성도님들께서 기도와 헌신으로 한 절 한 절 다듬어 오신 번역의 원칙과 문체가 이 사역의 귀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그 유산을 토대로 한국 큐티선교회와 협력하여 번역 지침을 정비하였고, 이 지침에 따라 첨단 언어 기술의 도움으로 초벌 번역의 대부분이 이루어지며, 이후 꼼꼼한 검토와 피드백을 거쳐 한국에서 최종 출판됩니다. 성도님들의 손에 들리는 영문 QTin 한 권 한 권에는 앞선 성도님들의 수고와 현재 간사님들의 헌신이 함께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이 사역, 특히 번역 과정에 AI와 같은 첨단 기술을 활용하면서 그 놀라운 발전을 다시 한번 봅니다. 이와 같은 도구들이 우리 삶 곳곳을 돕는 세상이 되어 가는 지금, 날마다 QTin을 통해 만나는 주님의 말씀으로 깨어 바르게 분별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김광영 장로



교회학교 소개
BYM 중등부

마음을 찢는 예배



BYM 중등부는 히브리어로 '마음을 찢다'(을 2:13)라는 의미를 가진 'QARA'라는 이름 아래 모인 공동체입니다. 형식적인 겉옷이 아닌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찢는 진정한 회개를 통해,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날마다 돌아가는 6~8학년 자녀들의 거룩한 예배 공동체입니다.

어린아이에서 청소년으로 넘어가는 사춘기는 몸과 마음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기이기에, 그 어느 때보다 깊이 있는 영적 훈련과 도움이 절실함

니다. 이에 중등부는 현호승(Daniel Hyeon) 목사님의 리더십 아래 신재민 전도사님과 20여 명의 교사들이 한마음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자녀들을 말씀과 사랑으로 양육하고 있습니다.



매주 130여 명의 학생들이 모여 뜨거운 찬양과 살아 있는 말씀을 나누며, 소그룹 모임과 금요 프로그램을 통해 삶으로 이어지는 신앙을 세워 갑니다. 또한 찬양팀, 서비스팀, 미디어팀 등의 사역을 통해 섬김의 기쁨을 배우고, 매년 여름과 겨울 두 차례 열리는 수련회에서는 하나님을 더욱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는 시간을 갖습니다. 특히 베델교회에서 가장 어린 선교팀으로서 매년 30여 명의 학생들이 일주일간 멕시코 단기선교에 참여하여 현지 아이들과 고아원 VBS(성경학교)를 섬기며,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평소에는 장난치며 노는 영락없는 중학생들이지만, 예배가 시작되면 찬양 가운데 기쁨으로 뛰어놀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 "Jesus!"를 외치며 회개와 눈물로 기도합니다. 비록 아직 어리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QARA 자녀들의 모습은, 섬기는 저희에게도 늘 큰 영적 도전과 감동이 됩니다.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와 예배하는 중등부 자녀들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지속적인 사랑과 격려, 그리고 뜨거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을 2:13)

최호경 집사

담임목사: 김한요 목사

◎목회자◎

기획/행정/QTin: 조동현 목사
 소망/선교: 이충경 목사
 기쁨/찬양/전도: 박경철 목사
 화평/온유/섬김: 박성권 목사
 사랑/셀/울림: 조태현 목사
 찬송/Joy/훈련: 서동민 목사
 은혜/새가족/BCA: 배홍수 목사
 믿음/예배: 이형석 목사
 BGC 담임: Dan Nam 목사
 BGC(College/Worship): Peter Lee 목사
 BGC(Young Adult): Daniel Yoon 전도사
 예심채플(총괄): 강솔로몬 목사
 예심채플: 공병주 목사
 예심채플: 최요셉 인턴 전도사
 영어교동부: 김한나(Hanna) 전도사
 교회학교(총괄)/영어중등부: 현호승(Daniel) 목사
 영어중등부: 신재민 전도사
 초등부: 이지원(Cindy) 전도사
 유년부: 이승진(Sharon) 전도사
 K-1: 정가영(April) 전도사
 유치부/아기학교: 전소연 전도사
 유아부: 이경은 전도사
 영아부: 최미정 전도사
 소망부: 김재은 전도사
 환우: 정티나 목사
 Beyond the Blue: 오경희 전도사
 병원심방: 김현일 협동목사
 상담: 황성철 협동목사
 의료상담: 이강민 전도사

◎베델 콰이어 및 찬양팀◎

지휘자: 김형직 목사
 솔리스트: 최정원
 뮤직디렉터: 정봉화
 반주자: 한현미, 박정연
 예심 위임: 조요셉

◎교회 직원 및 간사◎

사무장: 조주은
 건물/차량관리: 김유호
 사무실: 인현미, 이미옥
 재정실: 이수민
 방송실장: 박주남 전도사
 방송실: 민윤기, 김앤드류(인턴)
 목회지원/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음향: 최철기
 콘텐츠 디렉터: 최종형
 음향: 강창위, 한 진
 디자인: 박선경
 웹/IT: 김정아
 수양관: 오춘란

사역광고

가을학기 베델 제자훈련 모집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성경을 더 깊이 알길 원하시나요? 2026년 가을학기 베델 제자훈련이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양육반, 제자반, 말씀 플러스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은 훈련된 목회자들과 리더들을 통해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훈련으로 진행됩니다.

영어가 더 편하신 분들을 위해 영어 양육반(English Growth Class), 영어 제자반(English Discipleship Class)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며 성숙된 신앙 공동체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말씀을 통해 삶이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해보세요. 많은 참여와 등록 바랍니다.

▶ 신청 기간: 8월 2일(주일)~23일(주일) 까지

▶ 신청 방법: QR 코드 또는 교회 홈페이지(bkc.org) 및 본당 앞 부스

▶ 오리엔테이션 일시:

- 양육반 & Eng. Growth Class: 8월 30일(주일) 오후 12시 45분 (한국어, Eng)
- 제자반 & Eng. Discipleship Class: 9월 6일(주일) 오후 12시 45분(한국어, Eng)
- 말씀플러스: 9월 5일(토)

▶ 오리엔테이션 장소: 비전채플

▶ 문의: 이승호 집사 (714)510-1364,

Rev. James Suh (562)447-6947(Eng. Growth Class)



예배 봉사자

주일예배 대표기도(8월) |

8/9: ①부-마상오	②부-박원규	③부-손석환	④부-윤지섭
8/16: ①부-박지학	②부-백영만	③부-변 진	④부-김수빈
8/23: ①부-박종민	②부-선상균	③부-안경수	④부-김지수

헵시바 토요새벽 대표기도(8,9월) |

8/8: 윤현돈	8/15: 이삼열	8/29: 이상열	9/5: 이상훈
----------	-----------	-----------	----------

강단꽃(8월) |

8/2: 장석우	8/9: 오경희, 장다운	8/16: 윤주원, 조나원, 최하자	8/23: 최하자
----------	---------------	---------------------	-----------

[의무실(오전 8:30-오후 1:00)]

이번주 | 의사-김규원(소아과), 간호사-주경아

다음주 | 의사-한우광(한 의사), 간호사-김명숙

선교후원

[파송선교사] 창의적접근지역 | 손승옥, 김진영, 서반석(이루다), 오감사(오사랑), 장주원(장한나), 이희숙, 장과장(주열매), 호세아(그 사랑), Nader(Dina), Yeshua, Reza

조지아 | 김현수(고봉주) 캄보디아 | 황순현(황현주), 이석배

[협력선교사] 기니비사우 | 유요한(유글로리아) 니카라과 | 박우석(이현숙) 이스라엘 | 장이삭(정인나)

멕시코 과달라하라 | 허익현(김영중) 몽골 | 을지바트(민애령), Kathy Ribbs 베트남 | 성경(양선) 브라질 | 브레노(에스터)

온두라스 | 이동철(이순미) 우간다 | 박민수(이순영) 일본 | 강민숙(변선영) 캄보디아 | 김우정(박정희), 김인성

코스타리카 | 금상호(김미경) 탄자니아 | 황광인(황영숙) 태국 | 박상선(신영선)

창의적접근지역 | 길예평(길진명), 이상훈 문화선교 | 공 민(The Bridge), 김도현(나비공장)

*선교기관 | 나눔선교회, 밀알선교회, 바실레이아 신학교, 소망 소사이티, 한미가정상담소, Gift of Vision, GMMMA, GP미주본부, AU&W, New Hope 선교 유치원, QTM America, Silk Wave Mission, The Center for BAM(CBAM), 푸른초장의 집

*특별선교 | 복음방송(GBC), CTS, CGN TV

*문서선교 | 기독교일보, 미주 크리스천 신문, 크리스천 위클리

베델 알림판

◆ **감사합니다** 한여름의 시원한 신학강좌 강사로 섬겨주셨던 목사님들께서 1-3부까지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부-노진준 목사, 2부-박성일 목사, 3부-정갑신 목사

◆ **김한요 목사님과 함께 떠나는 마지막 수요일여행** '인생바다에서 만난 구명선', 이번 주 수요일(5일)부터 8주간 수요일여행이 진행됩니다. 오늘(주일)까지 마지막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북클릿은 등록하신 분에 한하여 받으실 수 있으며 권당 1불(현금)에 판매됩니다. (4면 참고)
일시/장소: 8월 5일(수)부터 8주간,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본당
문의: 조광중 집사 (949)706-4168

◆ **제65차 전도폭발 훈련생 모집** 복음을 배우고, 훈련하며, 실제 현장에서 전하는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시/장소: 8월 25일-12월 1일(15주),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유년부실
신청 방법: QR 코드 또는 본당 앞 부스
문의: 최동주 집사 (602)466-4477

◆ **셀목자 뱅킷** 복하기 동안 열심히 셀을 섬기고 새로운 가을학기를 준비하는 셀목자님들을 위한 셀목자 뱅킷이 열립니다. 셀목자님들께서 모두 참석하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즐거운 교제의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일시/문의: 8월 29일(토) 오후 4시, 비전채플, 김학남 집사 (408)806-4133

◆ **제8기 베델기도학교 모집** 체계적인 기도훈련을 통해 기도의 영성을 배우기 위한 용사로 세움받기 원하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접수마감: 8월 2일(주일)
등록 방법/등록비: QR 코드 혹은 본당 앞 부스, 20불(교재 포함)
교육 기간: 8월 첫째 주-11월 첫째 주 (총 14주)
교육 내용: 8월 6일(목) 개강모임, 조별 기도모임과 책 나눔(12주), 기도 세미나(2회)
문의: 이봉운 집사 (714)788-1235, prayer.school@bkc.org

◆ **큐티인 섬머 챌린지** 교회학교에서 큐티인 섬머 챌린지가 8월 9일(주일)까지 진행되며 각 부서에서 안내하는 방법대로 매일 큐티를 한 친구들은 마지막 날 시상 있습니다. 큐티책은 실내카페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각부서 전도사

◆ **소망부 토요학교 가을학기 등록** 찬양과 말씀 그리고 크래프트, 노래, 태권도, 사물놀이 등의 특별활동으로 진행되는 소망부 토요학교가 개강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일시: 9월 5일(토)-11월 21일(토) 10주, 매주 오전 10시-오후 1시(10월 17일, 24일 휴강)
장소/등록비: 조이채플, \$100
문의: 김중곤 집사 (714)450-0015, 김재은 전도사 (949)923-7094

Bethel Announcements

◆ **31기 베델아기학교 모집** 생후 15개월부터 48개월까지의 영·유아와 보호자가 함께하는 놀이·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다양한 놀이와 예배를 통해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도록 돕습니다.
일시: 8월 26일(수)-11월 11일(수) (총 12주)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11시 45분
장소: 할렐루야 채플, 유년부실
대상/정원: 생후 15-48개월 영·유아(보호자 동반), 35명(선착순)
등록 방법/등록비: QR 코드 또는 주일-본당 앞 등록 부스, 평일-행정사무실, \$300
문의: 현승원 집사 (701)212-5517, 전소연 전도사 (562)282-2991



◆ **큐티인 8월호 판매** QTin 8월호가 나왔습니다. 카페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8월이 되시길 바랍니다.
문의: 김광영 장로 (949)233-0677

◆ **기도해 주세요**
캠보디아(황순현, 황현주 선교사) 단기선교가 8월 4일(화)-8월 11일(화)까지 있습니다. 안전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 **축하해 주세요**
- 오늘 3부 예배에 이기민 성도/박은죽 집사의 아들 이고운(Koyun)의 유아세례식이 있습니다.
- 권주현 집사와 백소희 양의 결혼식이 7월 29일(수)에 있었습니다.
- 한상섭 장로, 한현미 권사의 장남 David 군과 김수진 양의 결혼식이 8월 8일(토)에 텍사스 달라스에서 있습니다.

◆ **위로해 주세요**
-故 정한옥 님(정진선 성도의 부친, 경영임 성도의 시부)께서 7월 23일(목) 한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故 정영숙 성도님(안경아 집사의 모친, 김종민 집사의 장모)께서 7월 25일(토) 한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故 최은서 집사님(최재환 집사의 부친, 진수연 집사의 시부)께서 7월 25일(토) 한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故 김정순 성도님(정티나 목사의 시모)께서 7월 26일(주일) 한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故 이동춘, 최순임 님(이성수 집사의 부모, 배은섭 권사의 시부모)께서 7월 26일(주일)에 한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故 한미자 님(안형근 성도의 모친)께서 7월 27일(월) 한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교회학교 주중 모임 안내	주중 예배 및 기도모임 안내	베델뉴스 편집위원
■ AWANA(어와나): - Sparks / 금요일 오후 7시, 각 클래스(K-2학년) - Truth&Training / 금요일 오후 7시, 각 클래스(3-5학년) ■ 중,고등부: - BYM(영어중고등부) / 금요일 오후 7시 30분, 비전채플 - CIM(한어중고등부) /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살롬채플 ■ 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시 30분, 한국학교 각 교실 ■ 아기학교: 수요일(15-48개월) 오전 9시 45분, 할렐루야채플	■ 주중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시 30분, 본당 ■ 헬시바 새벽기도회(토): 오전 6시, 본당/온라인 ■ 베델 수요일저녁예배: 오후 7시 30분, 본당 ■ 예수금요일예배(청년): 오후 7시 30분, 임마누엘채플 ■ 주일 레위기기도 모임: 1-3부 예배시간 중, 컨퍼런스룸	■ 발행인: 김한요 담임목사 ■ 편집장: 김경자 권사 ■ 기 자: 강정훈 집사, 강은혜 집사, 권두경 집사, 김규현 집사, 김유미 권사, 배민정 집사, 박혜성 권사, 안정선 권사, 이혜림 집사, 이소영 권사, 황수정 집사 ■ 사진 기자: 박상근 장로, 최호경 집사, 차규양 장로 ■ 번 역: Grace Yi 전도사

비전 주차장 3377 Michelson Drive, Irvine, CA 92612 *주차 시 (Employee Reserved Parking)은 피해서 주차하시길 부탁드립니다. ◆ 베델뉴스 원고파일은 bethelnews@bkc.org로 보내주세요.

베델/갈릴리수양관 31600 El Cariso Trail, Lake Elsinore, CA 92530 ◆ 수양관전화번호(예약문의) (949) 943-9697 ◆ E-MAIL bgrcenter@hotmail.com

Sunday Worship Sermon Note	Speaker
☐ 1 st : The Uncertain Church (John 5:1-9)	Rev. James Noh
☐ 2 nd : The Uncertain World (Psalm 12:1-8)	Rev. Steve Park
☐ 3 rd : The Uncertain Future (2 Kings 4:1-7)	Rev. Gab Sihng Chung



English translations for
worship services via
Discord